

산문박의 禪

국악인 김영동

“인생은 한바탕의 교향곡”



삽화·이기선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대하라

“인간과 자연은 하나” 미물도 내몸같이 여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광활한 공간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의 사랑의 넓은 곳이다. 우리의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한점의 티끌에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우주에도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유정무정의 생물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어떻게 살고 있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성을 갖고 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 침탈해 서도 인되고 살상을 당하여도 안된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한 시도 없이 생명의 살상이 단말마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가려운 일이고 비참한 비극이다.

사물을 치는 이유

사찰에서는 우람한 범종을 울려 지옥계의 생명을 안위하고 복을 두드려 축생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명성을 보인다. 또 독어를 쳐서 물속에 살고 있는 어패류 일체를 보호하는 법회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교설한 자비정신을 널리널리 전하는 법음이다. 불교는 생명존중의 종교이다. 생명처럼 아름답고 지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방생은 생명의 해방이다. 남이 새생명을 상해 하면 거부하고 반항한다.

생명은 오래오래 살기를 후원한다. 죽기를 원하는 생류는 없다. 그러나 제 욕심이나 제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모든 생명은 제가 살만큼의 목숨을 받기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서로의 생명에 대하여 존엄성을 인식하고 서로 서로에게 연결 짓는 빛이 바로 방생의 뜻이 된 것이다.

늘 버릇처럼 남의 것을 훔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생명의 해방 <放生>

치는 일이 있고 보면 오늘도 루치지 않고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꼭 죽어야 속성이 풀리는 심보가 있다. 이것은 훔치는 일이 쌓여 제 자신도 모르게 훔치게 된다. 이러한 일이 좋은 행업인가 생각해 야 한다.

산에 사는 사람이 산새와 이야기하고 함께 노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산에 살면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먹이를 먹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다. 한 3년 계속하니 산새가 쳐마릴까가지 아니 마루청, 방안까지 찾아와 그 사람과 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젠 어깨, 손등에도 앉고 사람이 알아 듣지 못하는 노래도 지저귀면서 즐거운 눈망울을 빛내고 있다. 만약 그 사람이 해코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새들이 가까이 할 것인가.

미물도 저를 아껴주고 감사 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은 삶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도 미신적인 행위라고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형식속에 의미가 담기고

또한 순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방생을 고기나 자라를 호수나 강에다 해방시켜주는 의식으로 치부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생의 깊은 의미를 저버리고 한갓 행사로 하거나 의식적 법회로만 하면 안될 것이다. 방생은 모든 생명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알뜰한 생각을 아로새겨야 한다.

지구살리기 환경운동

오늘날 우리는 이 방생의 영역과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영역의 확장은 바로 환경보호운동이다. 이 우주는 地·水·火·風으로 이루어져 있다. 땅이 살아야 하고 흙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 물이 많아야 하고 생수가 되어야 한다.

불이 무독성의 기운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바람이 맑게 되어 언제나 생기도는 공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지구의 모든 땅, 물, 불, 바람이 절대적 오염처를 넘어가고 있다. 땅은 죽어가고 물은 썩어가고 불에는 독소가 들어있고 공기는 맑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들이 방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지구와 우주를 합부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계의 방생법회는 환경보존, 지구살리기, 우주공존의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방생은 넓은 의미의 생명보존관이 된다. 생명의 해방 이것은 자연은 자연으로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오래 사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영구히 자연으로 존재되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자비사상이 자연사랑으로 연결되고 자연이 방생되는 공간으로 생명되어야 할 것이다.



늘의 '신수제천'으로 만든 것. 또 '단군신화'를 선율로 표현하고 '개벽'의 꿈을 곡으로 꾸어 보는 것들은 김씨만의 감각일 것이다.

특히 김씨가 절집에서 오랫동안 행해오는 '예불'을 음악으로 만들어냄으로 우리시대의 불교음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은 신선감 이전의 충격이었다.

—예불을 음악으로 표현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 예불은 그 자체가 음악입니다. 음악으로 행하는 의식의 음악적인 부분을 악기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는 89년도에 사찰을 복으며 승랑사에서 예불의식을 복원했다. 그 사찰의 신들린 듯한 감정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선(禪) 음악도 만드셨는데 직접 참선을 하면서 곡을 만드셨는지요.

▲ 아닙니다. 음악 만드는 과정이 제게는 참선입니다. 선율이 제게는 선방이거든요. 선을 속에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한바탕의 교향곡과 같은 것입니다.

김씨는 몸으로 하는 참선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음악가의 여백 수 없는 근성일 것이다. 그는 늘 음악으로 참선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줄기를 찾아낸다. 그 빛줄기는 당연히 선

여름의 시원스런 물줄기도 말라버린 세종문화회관 뒷편 광장 분수대.

초겨울의 햇살이 가야금의 고음같이 넘쳐 있는 분수대 옆 건물 3층은 서울 시립 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이다. 분주하게 악기를 쟁기고 자리에 앉은 단원들은 조율에 정신이 없다. 다양한 악기들의 조율시간은 혼란 그 자체다. 지휘와 편지 역할을 무질서하게 뽑아대는 대금주자. 어찌들으면 새벽 닭의 울음같은 피리소리. 가야금 거문고의 등당거리는 소리, 무질서 속에서 저마다의 음색을 내뿜는 조율의 시간 속으로 김영동씨가 들어선다.

국악의 대중화를 말할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김영동씨. 이미 그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동남아 미주지역에까지 알려졌다. '쉬운 우리음악'을 만들고 '출중한 민족정신'을 선율에 담아낸 김영동씨는 수차례의 공연과 음반을 통해 우리음악의 맛을 일깨운 선두 주자이다.

혼란스런 조율의 시간을 딱 끊어 버리는 김씨의 몸동작 그것은 지휘봉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간단한 동작에 우주가 숨을 죽인 듯 연습실은 고요의 정점으로 물러간다. 결코 길지도 않은

예불·禪의 아름다움 국악으로 승화

그 고요의 시간 속에 선 김씨는 어느 깊은 산 암자의 풍경소리를 생각한다. 고요를 깨는 소리. 마침내 그 소리도 고요 속에 물려가는 여운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그의 손이 원을 그리듯 내려 오면 이미 모든 악기의 음정은 정확히 맞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두시간 동안의 연습이 이어진다.

김영동씨는 전통음악을 문화재로서 보존 전승하느냐 미래의 음악적 기준으로 끌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후자를 택한다. 그래서 그는 늘 오늘의 음악과 내일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신선한 맛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자세는 사뭇 진지하다.

현재는 기악곡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는 '영산회상'에 가사를 얹은 것이 라든가 신라의 음악인 '수제천'을 오

김씨는 몸으로 하는 참선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음악가의 여백 수 없는 근성일 것이다. 그는 늘 음악으로 참선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줄기를 찾아낸다. 그 빛줄기는 당연히 선을 통해 대중의 가슴을 파고든다.

울로 질서를 부여받고 악기를 통해 대중의 가슴을 파고든다. 이 긴 과정이 그에게는 결코 길지 않다. 처음도 끝도 모두 음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70년대에 만든 영화·연극 주제곡과 국악가요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최근의 작품들에서는 철학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그만큼 음악적 관심이 숙성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매년 그는 '소리 여행'을 공연하며 대중의 가슴과 만나고 또 스스로의 성장을 가능한다. 울여름에는 동남아 5개국에서 순회공연하며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도 했다. 요즘은 김영동씨가 몰두하고 있는 작품은 '토지'이다. 박경리씨의 소설을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년 4월 즈음 내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임연태 기자)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조실: 전관응 큰스님	회주: 오복원	총무: 손효담	문화사회국장: 송도진
	부주지: 유법성	교무: 장대해	호법국장: 박정신
	기획조정실장: 김법등	재무: 양장명	연수원장: 이양길(法日)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도영

실상사	운석	홍부	사사	진혜	대원	사사	월우	심곡	사사	해공	선국	사사	법능	우천	암사	법일
광사	지성	정문	사사	정수	정안	사사	동현	익산	사사	원성	덕진	사사	선능	안국	사사	행주
은사	성우	해문	사사	계수	홍단	사사	성우	수사	자암	진륜	운정	사사	능화	국부	사사	관공
남고	도정	망해	사사	지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암사	상래	팔도	사사	상화	부통	사사	정공
칠성	성일	학선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
서고	성일	국위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
천고	성일	국위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
극락	성일	국위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
법우	성일	국위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
법소	성일	국위	사사	도홍	관음	사사	성우	사사	사사	해도	상래	사사	상화	원통	사사	정공